

온라인 공간과 혐오 문화

김수아(서울대학교 기초교육원)

온라인 공간이란...

온라인 공간에 대한 기대

- 익명성
- 네트워크와 연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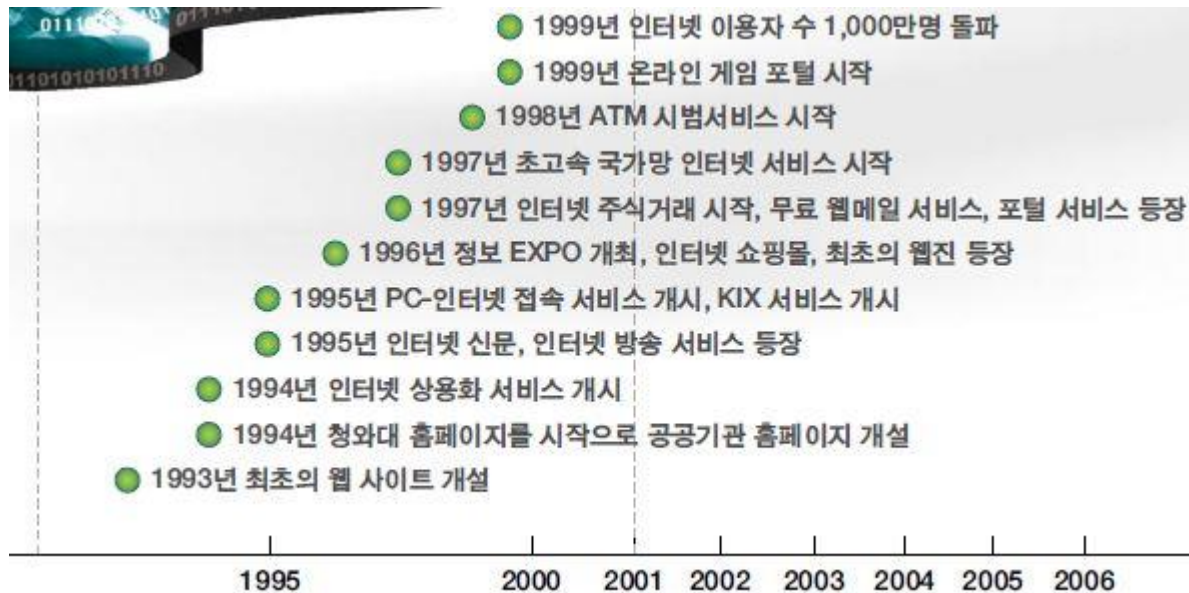
온라인 공간에 대한 경계

- 차이는 드러나게 되어 있음
- 지배권력에 의해 구조화됨

- ✓ 공간 자체의 기술적 가능성
- ✓ 사람들이 실제로 어떻게 이용하고 있는가

한국의 온라인 공간 성장 역사

- ✓ 1988. PC 통신 서비스 상용화
- ✓ 1998. 두루넷 초고속 인터넷 서비스 상용화



평등한 참여?

- ✓ PC 통신에 대한 보편적 접근이 어려움
(비용, 환경 등)
- ✓ 익명성을 무기로, 여성에 대한 성희롱, 성폭력, 혐오 표현 발생
- ✓ 법, 제도적 보호의 움직임은 1998년 전후
에야 시작되었고 여전히 미진함
 - 상담, 통신사 정책 등

인터넷 문화의 변화와 댓글 문제

- ✓포털 중심으로의 변화
- ✓지식인 서비스 등 댓글 문화의 형성
- ✓디씨인사이드 갤러리 중심의 인터넷 폐인 문화
- ✓인터넷 문화를 둘러싼 논쟁 발생
- ✓온라인 "격화"

격화 (flaming)

✓인터넷의 익명성과 개방성을 악용해 상대방에게 상처를 주는 행위



스마트폰과 댓글 문화

- ✓즉각적, 상시적
- ✓언제 어디서나 접속된 네트워크
- ✓짧게 말하기
- ✓격화된 말하기
- ✓말하기 문화의 변화

댓글이 중요한가?

- 포털 자체 뉴스 서비스 중단 시 “언론사 사이트 더 방문” 33%.. “뉴스 이용 줄이겠다” 11%
- 최상위 댓글 2~3개 읽는다 35.4%.. 상위 10개정도까지 읽는다 40.4%
- 포털 뉴스 댓글 “읽는다” 70%.. “댓글에 감정 여과 없이 표출돼” 76%
- 댓글 이용자 84% “다른 사람들이 어떻게 생각하는지 궁금해 댓글 본다”
- 지난 1주일 간 인터넷 뉴스 의존 경로.. 네이버 65.4%, 다음 25.5%, 언론사 사이트 2.4%

혐오 표현의 정의

- ✓ 혐오의 대상: 개별 개인이 아닌 집단의 속성에 대한 공격
- ✓ 혐오 표현은 개인의 정체성에 대한 공격이 아니라 집단 정체성(group identity)에 대한 공격의 형태
- ✓ 혐오 표현의 희생양이 되는 집단 정체성의 소유자들은 역사적 · 사회적으로 소수자에 속하여 왔으며, 편견과 조롱의 대상으로 정신적 · 신체적으로 핍박을 받아 온 경험을 갖고 있음

혐오 표현의 정의

- 차별, 적대, 혹은 폭력이라는 구체적인 결과를 유발하는 직접적인 선동/유도 행위
- 혐오의 감정을 옹호, 확산, 조장, 정당화하는 모든 표현 행위

온라인 혐오 표현 부상의 이유?

- ✓디씨인사이드의 코드 문화 : 평등을 기조로 하는 반말, 비하, 조롱
- ✓지역, 성별, 인종에 대한 비하 코드, 정부 비판이 유머로 소개되어 받아들여짐
- ✓여성부에 대한 반감 역시 유머코드화
- ✓온라인 상의 다른 커뮤니티에 퍼짐
- ✓"반말 안하는 디씨 "

온라인 혐오 표현 추세

- ✓전세계적으로 온라인 혐오 표현이 관심의 대상이 되고 있음
- ✓유튜브 댓글, 트위터, 페이스북 북 등이 혐오 표현의 온상으로 지목됨
- ✓혐오 표현이 소셜 미디어를 통해 유통되면서 일부 극단적 웹사이트에만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많은 사람들이 볼 수 있도록 유통되는 대중적이고 주류적인 성격을 갖게 됨

온라인상의 혐오 발언

- ✓인종, 민족, 종교, 성별 등의 이유로 대상에 대한 증오 등을 표명하는 표현
- ✓선동적, 모욕적, 조롱하는, 위협하는 발언으로 개인 또는 집단을 공격하고 혐오를 조장하는 것
- ✓효과 : 편견에 근거한 사회적 차별 유발
집단 간 사회적 갈등의 원인

온라인 공간의 혐오 표현이 갖는 문제

- ✓ 혐오 표현이 위험한 이유 : 혐오 표현에서 나타나는, 혹은 혐오 표현으로 조장되는, 혐오의 감정이 표현에서 그치지 않고 특정 집단에 대한 차별을 정당화하는 수단으로 쓰이거나, 특정 집단을 대상으로 하는 폭력 행위로 이어지는 경우가 많음

온라인 공간의 혐오 표현

- ✓ 온라인 커뮤니케이션 특성 때문에 오프라인에서의 혐오 표현보다 널리 그리고 빠르게 확산될 위험
- ✓ 익명성 때문에 오프라인에서는 표명하지 못할 혐오의 메시지를 온라인상에 올리는 개인이 존재
- ✓ 많은 경우에 혐오 표현은 의도적으로 혹은 의도하지 않은 채 잘못된 정보나 왜곡된 사실을 포함하고 있음

온라인 공간의 혐오 표현

- ✓중간 매개자(gatekeeper)를 거쳐서 걸러지는 과정 없이 무차별적으로 불특정 다수를 대상으로
- ✓온라인 게시판에 올려진 혐오 표현 메시지 하나는 그에 달리는 무수한 댓글 및 다른 사이버 공간으로 퍼 나르기를 통해 무한 확산될 가능성이 있음
- ✓한번 온라인에 유통된 혐오 표현 메시지는 영구적으로 인터넷 공간에서 존재할 가능성이 있음

온라인 공간의 혐오 표현

- ✓ 트롤(trolls) : 일부러 증오에 가득 찬 극단적인 메시지를 인터넷에 올려놓고 사람들이 어떻게 반응하는지를 보며 즐기는 사람들
- ✓ 한 명의 트롤이 여러 개의 계정들을 개설해서 자신이 올린 메시지에 지지하는 답글을 달아 지지를 받고 있다고 꾸미기도 함

침묵의 나선이론

- ✓ 개인의 일회성 발화에 그치던 혐오 메시지가 온라인 커뮤니티에서 반복적, 지속적으로 변모하여 확대 재생산됨
- ✓ 본래는 소수견해에 불과했던 혐오 메시지가 마치 주류의 사상인 것처럼 받아들여질 가능성

혐오 표현의 확산

- ✓이주 노동자에 대한 극단적 혐오를 표현하는 소수의 사람들이 활발하게 온라인 커뮤니티에서 다수의 사람들이 가진 의견으로 포장될 수 있음
- ✓이주노동자들에 대한 반감이 없었던 사람들이 온라인상에서의 외국인 혐오 표현에 노출이 되면서 자신은 그렇지 않지만 다른 많은 사람들이 혐오의 감정을 품고 있는 것으로 오인하게 됨

온라인 혐오 집단의 형성

- ✓비슷한 생각을 하고 있는 사람들을 모아 혐오의 감정으로 뭉친 집단을 쉽게 꾸리고 운영해 나갈 수 있으며 그를 기반으로 오프라인에서의 행동을 도모할 수 있음
- ✓온라인은 혐오 표현의 유통 공간이자, 혐오의 정서를 공유, 증폭하여 그룹 정체성을 확립시키고 오프라인으로도 확장시킴

집단 극화 현상(group polarization)

- ✓ 온라인상에서 극단적인 의견들이 잘못된 정보를 바탕으로 확산되고 강화될 가능성이 높음
- ✓ 온라인 공간에서는 자신이 속한 집단의 규범이나 정체성을 좀 더 극화하여 지각하고, 동조하는 경향이 있음
- ✓ 개인의 의견이 확고할수록, 반대 의견에 대한 저항과 선택적 인지 활동이 더욱 활발해지게 됨

필터 버블 시대 공유된 내러티브의 문제

- ✓에코 챔버, 필터 버블 : "온라인 공간은 사람들이 자신의 선호를 반영하여 선호된 콘텐츠만을 연결하고 상충되는 아이디어를 피하는 거대한 에코 챔버로 작동한다"*
- ✓탈진실 (post-truth) : 2016년의 옥스퍼드 사전이 선택한 단어. 감정, 개인적 신념에의 호소가 객관적인 사실보다 여론 형성에 더 많은 영향을 미치는 것을 말함 (oxforddictionaries.com)
- ✓"공유된 그룹 내러티브(shared group level narrative)" : 인간은 합리적으로 정보를 수용하기 보다는 그룹이 이미 구축한 내러티브 구조 내에서 정보를 수용함**

* Pariser, E. (2011). *The filter bubble: What the Internet is hiding from you*. New York : Penguin Press,

** Sloman, S. · Fernbach, P.(2017), *The Knowledge Illusion: Why We Never Think Alone*. Penguin.

“공식적인 교육과정에서 단 한 번도 여성
및 각종 소수자들의 삶을 어떻게 이해할 것
인지, 그리고 (나 자신이 그러한 소수자 정
체성을 가질 수 있다는 가능성은 물론이고)
그들과 어떻게 관계 맺어야 하는지에 대해
서 교육받은 적이 없으며, 이 상황은 대학
에서도 크게 다르지 않다”

- 출처: <http://ppss.kr/archives/81258>

온라인 혐오 표현에 대한 대응

- ✓공적 교육을 포기하기 어려움
- ✓사람은 변하고, 집합적 선을 추구할 수 있다는 믿음
- ✓젠더 감수성, 인권 감수성, 차이와 차별에 대한 감수성 교육의 필요성
- ✓사이버 상의 혐오 표현은 발화자의 의도가 아닌 효과에 의해서 문제가 되는 것임. 댓글의 효과에 대해서 인지하도록 할 것

*본문내용출처: 김민정(2014). 일베식 "욕"의 법적 규제에 대하여- 온라인상에서의 혐오 표현에 대한 개념적 고찰. 언론과 법 13(2).